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부연구위원/실장
		극지전략연구실	성명	한다희	직급	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출장기간	2026.06.29.(월) ~ 2026.07.03.(금) (3박 5일)			출장지		폴란드(바르샤바)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6.29(월)	인천(11:15) →바르샤바(17:10)	이동		LOT POLISH AIRLINES LO 100 (인천→바르샤바)	
	6.30(화)	바르샤바	오전: Nord대학교 업무협의		-	
			오후: 2026 한국-유럽 북극 협력 세미나 개최			
	7.1(수)	바르샤바	오전: 북극경제이사회 업무협의		-	
오후: Maria Curie-Skłodowska 대학교 업무협의						
7.2(목)~ 7.3(금)	바르샤바(12:15) →인천(06:20)+1	이동		LOT POLISH AIRLINES LO 097 (바르샤바→인천)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옅서버국 간 북극협력 세미나를 개최하여 북극 거버넌스 변화와 비북극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공동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추진 기반 마련 - 북극 연구기관(노드대학교, AEC, IASC SHWG 등) 간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등 세부 협력 방안을 협의하여 향후 국제협력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 2026년 북극협력주간 참석 의사를 확보하고, 유럽 연구기관과 북극경제이사회(AEC)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사.참여기관 확대 방안 협의 - 비북극권 국가의 역할과 북극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MI 국제협력 플랫폼(KoNAC, APW 등)을 연계한 연구협력 기반 구축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대국민) 극지전략연구실 SNS 채널을 활용하여 국제 세미나 참석 결과 및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 성과 확산 추진 -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후속 연구 및 양자 북극협력 의제 발굴에 활용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2026 북극협력주간(APW) 중 '한국-북극 경제협력 세미나', '한-EU 북극협력 세미나' 추진 등 옅서버국 간 북극 협력 확대를 위한 후속 협력사업 발굴에 활용 예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6.30(화, 오전) Nord대학교 업무협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6.30. 10:00~12:00 / 사회과학연구원 회의실 - (주요 참석자) Andreas HNC 센터장, KMI 김엄지 실장/한다희 연구원
수행결과	- 노르웨이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of Norway) 공모사업 'DEMARCTICS(2027~2031)' 제안서 제출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북극 거버넌스 변화와 비북극권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논의 - 향후 과제 선정 시, 한국을 주요 사례국(Case Study)으로 하는 연구 수행을 위해 KMI의 역할과 연구 범위를 협의하고, 프로젝트 기간 중 한국 워크숍 개최(1회), 공동 논문 작성(최소 1편 이상 공저자 참여), 연구자 국제교류 등 세부 협력 방안 구체화 - 연구 일정,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및 주요 산출물(워크숍, 공동연구, 학술논문 등)의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과제 선정 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북극협력주간(APW), 한국북극협력네트워크(KoNAC) 등 KMI의 국제협력 플랫폼과 연구를 연계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확산하고, 한국과 노르웨이 간 북극 거버넌스 분야의 연구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 * DEMARCTICS는 러우전쟁 이후 변화하는 북극 거버넌스 환경에서 EU, 중국, 대한민국, 일본 등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자협력체, 수산, 해운,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는 2027~2031년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업무②	6.30(화, 오후) 2026 한국-유럽 북극 협력 세미나 개최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6.30. 13:30~17:00 / 사회과학연구원, 바르샤바대학교 회의실 - (주요 참석자) Piotr Rychlik 폴란드 극지대사, Valur Ingimundarson 아이슬란드대 교수, Andreas Raspotnik 노드대 HNC 센터장, Monika Szkarlat 마리아 퀴리-스크워도프스카대 교수, Marco Dordoni 페루자외대 연구원, Mads Qvist Frederiksen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Rafał Smoczyński 폴란드 과학원 교수,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이무성 명지대 교수, 신의찬 동덕여대 교수, KMI 김엄지 실장/한다희 연구원 등
수행결과	- (북극질서 변화) 최근 북극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 에너지안보, 공급망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략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 거버넌스도 북극이 사회 중심의 협력체계에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전환 - (한국의 역할 재정립) 한국은 기존의 '책임 있는 옵서버'를 넘어 북극과 글로벌 산업·기술·시장·국제협력을 연결하는 '전략적 연결국(Strategic Connector)' 또는 '촉진자(Enabler)'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국제규범, 원주민 권리 등 유럽이 중시하는 가치와 경제·산업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규제 대응 강화) IMO Polar Code 개정, EU 어업 관련 법안, 핵심광물·에너지 정책, 러시아산 LNG·원유 제재 등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강조 - (소다자 협력 확대) EU 북극정책 보다 개별 회원국의 북극전략과 EU의 특정 이슈에 대한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북극이사회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개별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소다자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현지 수요 기반 협력) 북극지역 주민들은 연구 사업보다 항만·산업 투자,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경제협력 중심 접근은 북극지역의 실질적 수요와 부합하는 협력 방향으로 평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자세한 내용은 '2026 한국-유럽 북극 협력 세미나' 결과보고 참고  
업무③	7.1(수, 오전) 북극경제이사회 업무협의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7.01. 10:00~12:00 / 사회과학연구원 회의실 - (주요 참석자) Mads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 KMI 김엄지 실장/한다희 연구원
수행결과	1. 2026 북극서클 총회(Arctic Circle Assembly) '북극항로' 세션 - (KMI) 2026 북극서클 총회에서 추진 중인 북극항로 메인세션의 기획 방향을 소개하고, 북극항로 상용화와 조선·항만·물류 등 산업계 참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을 설명 - (AEC) 북극항로는 해운뿐 아니라 조선, 항만,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산업이 연계되는 분야인 만큼, 산업계와 정책결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세션 구성이 중요하다고 제언 - (양측) 북극경제이사회(AEC)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극항로 관련 주요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세션으로 구성하기로 협의 * KMI, KOPRI를 비롯해 Davie, HD현대·한화오션, DP World, BPA 등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사 후보를 구체화하고, 발표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지속 조율 협의 2. 2026 북극협력주간 '한국-북극 경제협력 세미나' 세션 - (AEC)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IMO 규제, 선박 기술, 친환경 연료, 금융·보험, 현지 협력 체계 및 화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화주의 추가 운송 비용 부담 의사가 사업성 확보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 - (AEC) 향후 북극 협력은 해운·에너지 중심에서 조선, 핵심광물, 수산업, 우주, 기반시설, 관광, 연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유럽의 수산시장과 북극 어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산 분야 협력도 유망한 협력 분야라고 제언 - (AEC) 북극 협력사업은 과학과 정책뿐 아니라 북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사회는 연구사업 자체보다 항만·산업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KMI) 북극항로, 북극경제 및 산업협력 관련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수요와 산업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고, AEC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경제·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기업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 - (KMI) 북극경제이사회는 회원기업과 북극권 정부·국제기구를 연결하는 산업협력 플랫폼인만큼 북극 경제 분야의 민간 협력 확대를 위해 2026년 북극협력주간에 북극 경제·산업 분야 세션 규모를 확대하고(한-북극 청색경제세미나→한-북극 경제협력 포럼), AEC 회원기업의 참여를 통해 산업계 중심의 국제협력 플랫폼을 강화하자고 제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7.1(수, 오후) Maria Curie-Skłodowska대학교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7.01. 15:00~17:00 / 사회과학연구원 인근 회의실 - (주요 참석자) Monika Szkarlat 교수, KMI 김엄지 실장/한다희 연구원
수행결과	- (UMCS) IASC SHWG는 북극 거버넌스, 과학외교, 사회·인문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와 연구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극 문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지역사회, 정책 거버넌스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설명 - (UMCS) 최근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비북극권 국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옵서버 국가가 과학협력과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 - (KMI) 한국은 한국북극협력네트워크(KoNAC), 북극협력주간(APW) 등을 통해 국내외 북극 전문가 간 정책·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공동연구 및 국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 - (UMCS) 북극 거버넌스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과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지속시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 - (KMI)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 관련 현안에 대한 참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북극 거버넌스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의사 전달 - (KMI) 올해 12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2026 북극협력주간의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 및 참석을 제안하고, 향후 북극 관련 국제협력과 교류 네트워크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